

司教研究

제43집(2019/겨울)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司牧研究』는 ‘계광학술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펴냅니다.

발 간 사

지난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종 모임과 집회가 축소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14세기에 유럽의 인구 삼분의 일인 약 2400만 명의 목숨을 빼어간 ‘페스트’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인류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전염병이라는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러한 두려운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다양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 아니면 된다는 무관심한 태도, 중국인은 아예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혐오와 배척의 태도, 측은지심(惻隱之心)으로 사람들에게 대한 소중함을 되새기며 마음이나 행동을 취하는 태도도 있습니다. 창조주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같은 창조물이고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무관심과 혐오의 태도는 지양하고 보편적 형제애의 관점에서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앙 감각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님의 시각에서 깊이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이번 겨울호는 세상과 삶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교회의 복음화 사명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교회 대학교와 대학이 지녀야 하는 다양한 기준과 구체적인 원칙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여 발표한 교황회칙 『진리의 기쁨』(*Veritatis Gaudium*, 2017.12.8.)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의 발표문들이 특집으로 실렸습니다. 그리고 연구 논문 두 편과 번역문 한 편이 뒤따릅니다.

특집의 시작은 교황청 교육성 장관이신 주세페 베르살디 추기경(Card. Giuseppe Versaldi)의 기조연설입니다. 장관께서 직접 11월 9일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와 교회법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학술심포

지업에 참석하여 기초연설을 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교회 대학교와 대학들의 쇄신과 발전을 위한 교황령 “진리의 기쁨”이 예전에 발표된 “그리스도교적 지혜”(1979년)에서 제시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지속성과 일관성을 지니면서 40년 간 이루어졌던 규범들의 통합, 학문적 연구 발전, 변화된 세계의 사회 문화적 배경, 교황청이 동의한 고등교육분야의 국제협약 등으로 교회 대학교와 대학의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선교를 위해 출발하는 교회에 대한 교회 학문들의 기여를 쇄신하는 근본 기준인 네 가지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기준들은 가) 관상, 그리고 케리그마의 핵심으로 이끄는 영적 지적 실존적인 안내, 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다) 학과 간 접근 방식과 교차학과 간 접근 방식, 라) 교회 학문을 육성하고 촉진하는 전 세계 기관들 사이의 “관계망 구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법대학원’에 이어 ‘신학대학’이 필리핀의 마닐라에 소재의 ‘산토토마스’대학교와의 제휴 아래에서 교회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되었음을 선언하고 축하했습니다.

심포지엄 첫 번째 주제 발표자는 산토토마스대학교의 교회법 대학원장인 이사야 티옹코 신부(Fr. Isaias Antonio D. Tiongco)는 교회 대학교, 특히 교회법대학원의 개혁에 관한 교황청의 가르침에 대해서 산토토마스대학 교회법대학원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300년 가까이 가까운 역사적 과정과 현재의 교육체계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필리핀 내 그리스도교 500주년을 기념하며 교회법대학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언급했습니다. 교회법이 사람들의 삶에 늘 영향을 미치도록 교회법에 대한 이해와 교회법의 가치가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제시, 혼인법 및 혼인소송법에 관한 Diploma과정 개설에 대한 계획, 다른 교회법대학원들과의 ‘관계망’ 강화를 위한 연구 등의 노력은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전영준 신부는 본 대학이 교황청 교육성으로부터 교회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로서 ‘한국 교회에서 교회학위 수여의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체계와 교황청 교육성이 요구하는 교육 체계가 어떻게 다르고 교회 학위수여가 한국 가톨릭교회에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 설명했습니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교회학위 과정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언급입니다. 첫째로 예전보다 신학 전반에 걸쳐서 충분한 수업 연한과 세심하게 마련된 교과과목에 따른 충분한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한국 가톨릭교회가 교회 고등교육을 실현하는 거점으로서 아시아 교회와 세계 교회에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을 이수한 아시아 신학생들은 본국 교회에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국내 선교회 신학생들도 선교지에서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기여를 그 지역 교회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자인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장 한영만 신부는 ‘개별 교회 삶에서 교회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교회법이 친교의 신비로 이해되는 교회의 본성에 속한 것으로 교회의 삶 전체에 걸쳐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친교의 신비인 교회가 교계적으로 조직된 사회적 조직으로서 구성원들과 다양한 직무 사이의 정당한 관계 설정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확장에 봉사합니다. 개별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무와 그 직무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교회법이 기준으로 작용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의 교회법 전문가들이 각 개별 교회에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단에서는 두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본 대학의 영성지도를 담당하고 ‘생티어리 기욤의 황금편지에 나타난 거룩한 수업에 관한 연구’로 2019년 초에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정태영 신부의

‘거룩한 독서와 생티어리 기욤의 황금편지에 나타난 내적인 삶의 도구들’이라는 논문입니다. ‘거룩한 독서’와 관련된 중세사상 연구가들과 교회의 가르침, 그리고 중세 영적 저자들의 본문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설명하였습니다. 생티어리 기욤의 ‘황금편지’에 나타난 내적인 삶의 도구들을 설명하면서 지적인 신학교육과 영성생활이 괴리되지 않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거룩한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이해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이어지는 논문은 본 대학의 전례학 교수이며 사목연구소 소장인 본인의 졸문(拙文)인 ‘한국천주교회 고유전례력의 역사’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전례개혁에 따라 한국천주교회의 고유전례력도 새로운 전례주년 기준에 따라 쇄신되었고 이를 적용하여 2017년 한국어판 『로마 미사 경본』이 출판되면서 현재의 고유전례력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과정과 의미를 제대로 설명한 논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784년 이승훈이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한 한국천주교회가 순교의 역사와 지역 문화에서 기인한 나름대로의 고유전례력을 형성해 온 과정을 연구하여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대학의 동양철학 교수인 박문성 신부는 ‘인도 가정 제식의례의 변용’이라는 동양문화의 전문가인 에이노우 신고가 1987~1988년에 북인도 비하르주의 북부 미틸라 지방을 방문하여 바라문 가정이 거행하는 아침 예배를 관찰하여 고대인도 제식문화에서 규정된 의례와의 상관관계를 밝힌 논문을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문은 인도 가정과 공동체의 사제로서 역할을 한 바라문 가정의 아침 일과와 가톨릭교회 전례 및 예식들의 제의적 의미를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 학문들은 “신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갈수록 더 잘 이

해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인류의 온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로 끊임없이 흘러들며, 특히 사제 교역을 통하여 작용합니다”(사제 양성 교령, 14항). 이러한 교회의 교회 학문에 대한 가르침에 따라 본 잡지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잘 이해하도록 기여하고 다양한 사목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목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9년 12월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장
윤종식 신부

司牧研究 제43집 2019 겨울

차 례

발간사/ 3 윤종식

**[특집]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회 대학교와 대학에 관한 교황령
“진리의 기쁨”(Veritatis Gaudium)**

- 기조연설: 교회 대학교와 대학의 쇄신을 위한 교황령
‘진리의 기쁨’(Veritas Gaudium) — 교회법 분야 적용/ 13 주세페 베르살디
- 교회법 연구와 관련한 교황청의 지침에 대한 UST(산토토마스대학)
교회법대학원의 응답/ 31 이사야 티용코
- 한국 교회에서 교회 학위 수여의 의미/ 52 전영준
- 개별 교회 삶에서 교회법의 역할/ 75 한영만

[논단]

- ‘거룩한 독서’와 생티에리 기욤의 ‘황금편지’에 나타난
내적인 삶의 도구들/ 107 정태영
- 한국천주교회 고유전례력의 역사/ 140 윤종식

[번역]

- 인도 가정 제식의례의 변용 — 바라문 가정의 아침 일과를 실례로/ 179
에이노우 신고, 박문성 옮김

[부록] 237

- 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관/ 239
- I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계광학술연구기금 운영 규정/ 245
- III.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학술지 편집 및 심의 규정/ 248
- IV.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연구위원 명단/ 250
- V.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정기 학술 심포지엄 연보/ 252
- 司牧研究 총목차(1994-2019 여름)/ 254

Contents

Editorial Preface/ 3 *Rev. Yun, Jongsik, S.L.D.*

[Special Issue] “Pope Francis, Apostolic Contitution *Veritatis Gaudium* on Ecclesiastical Universities and Faculties”

Keynote Speech- La Costituzione *Veritatis Gaudium* per il rinnovamento delle Università e Facoltà Ecclesiastiche: Applicazione nel campo del Diritto Canonico/ 13

H. Em. Card. Giuseppe Versaldi

The UST Faculty of Canon Law’s Response to The Holy See’s Instructions for The Reforms in The Study of Canon Law/ 31

Rev. Isaias D. Tiongco, O.P., J.C.D.

A Meaning of Granting an Ecclesiastical Degree in Korean Church/ 52

Rev. Jeon, Yeongjoon, S.T.D.

The Role of Canon Law in the Life of Particular Churches/ 75 *Rev. Han, Youngman, J.C.L.*

[Articles]

Lectio Divina and Tools for inner Life in St. Thierry Guillaume’s 『Epistola Aurea』/ 107

Rev. Jeung, Taeyoung, Ph.D.

The History of Korean Catholic Church’s Proper Calender/ 140

Rev. Yun, Jongsik, S.L.D.

[Translation]

Changes in Hindu Domestic Ritual: With a Focus on the Morning Service/ 179

永ノ尾 信悟

tr. by Rev. Park, Moonseong, Ph.D.

[Appendixes]/ 237

□ 특 집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회 대학교와 대학에
관한 교황령 「진리의 기쁨」(*Veritatis Gaudium*)

주최 ·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

장소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진리관 대강의실

일시 · 2019년 11월 9일(토) 14:00-17:30

축 사

· 염수정 (서울대학교교수·추기경) ·

기조연설

교회 대학교와 대학원들의 쇄신을 위한 교황령 ‘진리의 기쁨’
— 교회법 분야에 있어서 그 적용

· 주세페 베르살디 (교황청 교육성장관·추기경) ·

제1발표

성좌의 교회법학 개정에 관한 교황청립
산토토마스 교회법대학원의 조치

· 이사야 티몽코 (교황청립 산토토마스대학교 교회법대학원장·신부) ·

제2발표

한국 교회에서 교회학위 수여의 의미

· 전영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장·신부) ·

제3발표

개별교회 삶 안에서 교회법의 역할

· 한영만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장·신부) ·

· 사회: 윤종식 (가톨릭대학교 사목연구소장·신부)

